

## 5·18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

강은숙

난민인권센터

### 〈논문요약〉

본 논문은 5·18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이들 생애사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집단의 생애사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허먼과 호넬트의 이론으로 사회학적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동타격대원의 트라우마티즘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생애사적 체험들이 교차하여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첫째, 사례집단은 5월민중항쟁 당시의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였지만, 동시에 집단적으로 가해자에 대해 저항하고 ‘5월정신’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항쟁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기동타격대동지회, 5월단체, 5월공동체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5월정신’이라

\* 본 논문은 5·18기념재단의 ‘2010년 5·18전문연구자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논문임.

는 일반화된 타자를 공유하며 인정투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부분적이지만 외상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고 애도하며, 공동체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었다. 셋째, 5·18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정책과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들은 ‘5·18 자원’과 권리에 대한 인정투쟁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5월정신’이 제한·변형되고 항쟁주체로서 권리와 자존감을 확장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사례집단은 외상으로 인한 임상심리적 후유증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지지가 축소됨에 따라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개별적·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진행된 과거청산 제도의 한계 및 5·18을 둘러싼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항쟁주체의 소외과정이 지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5·18 참가자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주요어:** 5월민중항쟁, 5·18과거청산, 생애사, 인정투쟁, 트라우마티즘

## 1. 연구의 문제의식

본 논문은 1980년 5월민중항쟁에서 시민군기동타격대<sup>1)</sup>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이 5·18과 관련한 사회적 트라우마티즘<sup>2)</sup>

1) 5월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최후진압이 예고된 5월 26일 오후에 시민군들이 결집하여 계엄군에 대항하고자 한 항쟁지도부의 공식적인 무장조직이다. 1~6조까지는 6~7명을 한 팀으로, 7조에서 13조까지는 약 10~13명을 한 팀으로 배치하였고, 이들은 대개 노동자 출신이면서 20세 전후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었다(안종철 2007a).

을 형성해 가는 과정과 사회적 조건을 고찰해 보았다. 5·18 참가자들 가운데 시민군기동타격대(이하 기동타격대)는 5월민중항쟁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물리적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였고, 그로 인해 항쟁 이후에도 구금과 고문 등으로 만성화된 외상을 경험하였던 기층민들로서, 5·18 참가자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외상과 인지적 변화를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집단이다. 즉 5·18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5월민중항쟁을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경험한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을 분석함으로써 피해자인 동시에 항쟁주체로서 겪었던 트라우마티즘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sup>3)</sup>을 중심으로 진행된 5·18 과거청산은 5·18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고,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한 매듭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하지만 3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참가자들의 상당수가 만성화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역사의 기록 속에서 ‘민주화 투사’이자 ‘영웅’으로 인정된 것과 달리 5·18 민주유공자들 중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복권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 고통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2차적인 트라우마를 복합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항쟁 이

2)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란 외상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라는 트라우마의 개념을 확장하여, 외상사건 이외의 요소들-가족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과 외상 경험자의 행위전략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 및 그로 인해 변화되는 트라우마의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3)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이라는 5대 과제를 가리킨다.

후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해 온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집단의 트라우마티즘을 시기별로 구분, 그 특성을 정치사회적·문화적 환경과 맞물린 인정투쟁의 양상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트라우마티즘 분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1) 이론적 검토

### (1) '5·18 트라우마'의 실태

5·18 참가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5·18 참가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이를 뒷받침해주는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 결과 약 3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트라우마가 만성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오수성 1990; 2001; 변주나 1996;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오수성·신현균 2008).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란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4판>은 트라우마에 잇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정의하고 있으며, PTSD 증상은 일반적으로 과각성(불안), 침투(재경험), 억제(회피)의 형태로 나타난다. 5·18 참가자들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한 전체집단 중 41.6%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당사자(부상자, 구속자, 유족)의 경우 가벼운 PTSD 이상인 경우는 55.8%이고, 중간 이상은 40.1%에 달했다(5·18기념재단 2006). 한편 5·18 참가자들 중에서도 집단별로 PTSD 정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심각한 PTSD의 경우 부상자 집단이 구속자 집단의 3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정기 2008).

〈표 1〉 5·18 유공자 집단별 외상 후 스트레스 비율(%)

점수	부상자	구속자	유족	유공자 소계	부상자 가족	구속자 가족	가족 소계	합계
0-14(증상 없음)	35.5	61.8	56.4	44.2	89.1	96.6	91.7	<b>58.4</b>
15-19(가벼운 PTSD)	19.4	14.7	5.1	15.7	3.6	3.4	33.6	<b>12.1</b>
20-29(중간 PTSD)	22.6	14.7	23.1	21.3	5.5	-	33.6	<b>16.0</b>
30 이상(심각한 PTSD)	22.6	8.8	15.4	18.8	1.8	-	11.2	<b>13.0</b>
합계(15 이상)	64.6	38.2	43.6	55.8	10.9	3.4	8.3	<b>41.6</b>
합계(20 이상)	<b>45.2</b>	<b>23.5</b>	<b>38.5</b>	<b>40.1</b>	<b>7.3</b>	-	<b>4.8</b>	<b>29.5</b>

자료: 5·18기념재단(2006)

일반적으로 5·18 당사자들에게 PTSD는 가족 및 이웃의 죽음과 잔혹한 살상의 직·간접적 경험, 연행 후 수개월 간의 고문 및 구타라는 첫 번째 외상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들은 과거의 외상을 일상적 공간 속에서 재경험하며, 외상 당시 가해자에 대해 느낀 수치, 모욕, 공포가 떠오르거나 그로 인한 복수, 공격, 도피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종종 주변인을 향하기도 한다.<sup>4)</sup> 5·18 참가자들의 상이 후 자살자의 비율은 10.4%로 일반인의 500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5·18기념재단 2008; KBS스페셜 “5·18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2009).

이처럼 기존 5·18 참가자들의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도와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5·18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성격을 광범위하게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5·18 참가자

4) 고통을 잊기 위해 마시는 술은 이러한 감정의 자제를 상실시켜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게끔 함으로써 문제를 악순환시킨다. 또한, 이러한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에게 전이된다. 한 5·18 참가자는 전처를 살인하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자살하였으며, 항쟁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참가자가 37일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뒤 달리는 열차에서 자살하기도 하였다(5·18기념재단 2008).

들이 현재까지 만성화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PTSD는 단순히 외상 사건의 충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상경험자의 사회적인 조건—계층, 학력, 성별—및 외상 당시의 인지적 과정과 대처 방식, 외상 이후 놓여진 정서적·경제적·정치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소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서, 그 반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도 작용한다. 더구나 5·18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수들이 5·18 참가자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임상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를 사회학적 논의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

## (2)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기본적으로 심리적 외상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따라서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은 외상 사건이 발생시키는 심리적 결과와 더불어 외상 경험자의 1)외상 이전의 사회적 환경, 2)외상 사건의 종류 및 외상 당시의 경험, 3)외상 이후 처해지는 환경, 4)외상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측정척도의 개념을 넘어서, ‘외상성 증상’들을 총칭하는 트라우마티즘(traumatism)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며(박영주 2004),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과 트라우마티즘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트라우마티즘’이라는 범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트라우마 이론이 외상의 현재적 상태를 정태적으로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트라우마가 회복되는 과정을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또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외상경험자들의 능동적인 행위의 측면이 추가될 때 트라우마티즘의 변형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5·18과 같은 사건의 체험자를 단순히 피해자로서만 다룰

경우, 5월민중항쟁과 항쟁 이후 수십 년간의 5월운동<sup>5)</sup>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상호작용의 영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5·18 참가자들의 다수는 국가폭력과 정치적 억압의 환경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구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트라우마 회복 과정의 동학을 드러내고 있는 허먼(Herman, J.)의 트라우마 회복단계 이론과 자아 형성 과정의 정치사회적 접근을 시도했던 호네트(Honneth, A.)의 인정투쟁 이론을 연결시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Herman 1997; Honneth 1992).

먼저 허먼은 외상경험자가 3단계의 회복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1)‘안전’을 확보하고 인식하는 단계, 2)외상기억을 애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통합시키는 단계, 3) 파괴된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나선형적인 흐름 속에서 서서히 파괴된 사회적 지지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도덕적·경제적·정치적 차원 등 삶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외상경험자가 대면하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패의 복합적인 동학으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동학은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호네트에 따르면 한 개인은 일반화된 타자와의 상호주관

---

5) 5월운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80년 5월 이후에 벌어진 운동으로서, 5월민중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집합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월운동은 매년 5월에 진행된 추념행사와 망월동 민주묘지와 관련된 일련의 장례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80년대 후반에는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합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정근식 1997; 정호기 2003a).

적 인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데,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Mead 1934), 인정투쟁은 일반화된 타자에 대한 상호인정관계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 전개되는 인정투쟁의 결과 획득되거나 축소되는 사회적 지지와 인정은 외상경험자의 회복단계에서 파괴된 자존감 및 자기존중을 희생시켜 트라우마티즘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회복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그 반대로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호네프가 제시한 인정투쟁의 세 가지 영역<sup>6)</sup>의 도식이 5·18 참가자에게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sup>7)</sup> 따라서 인정투쟁의 영역은 사례집단이 처한 상황에 의해 구성된 특수한 영역으로 재설정해야만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사례집단의 생애사를 인정투쟁이 변화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구획된 시기는 트라우마티즘이 변화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마다 전형적인 양상이 나타나기에 유용한 구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시기별로 사례집단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간략히 개괄한 후, 구술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시기별 생애사에서 드러난 인정투쟁의 양상을 일반화된 타자의 형성 및 상호주관적 인정의 획득 및 상실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허먼의 트라우마 회복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시기마다 형성·극복되는 트라우마티즘이 의미하는 정치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간략히 제시하였다.

6) 호네프가 제시한 인정투쟁의 세 가지 영역은 가족-시민사회-국가에 상응하는 1)원초적 관계(자기믿음), 2)권리관계(자기존중), 3)가치공동체(자기가치부여)이다.

7) 왜냐하면 5·18 참여자에게는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영역이 순차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티즘을 겪은 개인의 일반화된 타자 즉, 사회적 규범은 훨씬 더 불규칙적이거나, 매우 주관적인 영역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사례집단의 구체적인 생애체험과 고유한 기억으로부터 트라우마티즘을 분석하기 위해 구술생애사<sup>8)</sup> 방법론을 활용하였고, ‘서술적 진실성’에 초점을 두어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5명의 시민

〈표 2〉 구술자의 인적 사항

분류	이름	5·18 당시 직업	현재 직업	당시 나이	학력	구술일시(시간)	비고
주요 구술자	박○○	음악실 DJ	무직	19	중퇴	2010.10.23(05:13)	1회
	김○○	나전철기공	무직	21	중퇴	2010.9.14(02:51)	1회
	이○○	방위병(다방DJ)	무직	22	국졸	2010.9.14(01:12)	1회
	염○○	다방주방장	아파트관리직	24	국졸	2010.9.14(01:08) 2011.4.13(02:43)	2회
	강○○ (유족구술 하○○)	용접공	사망 (조경수재배)	20	고퇴	2011.5.17(01:43)	1회
보조 구술자	양○○	조선대 학생회장	구속부상자회 회장	미확인	대졸	2010.9.1(00:37)	1회
	허○○	중학생	5월단체 및 지역운동 단체활동	18	대학 중퇴	2010.8.27(02:39) 2010.9.13(1:42) 2010.9.15(3:53)	3회

주: 구술자들은 인터뷰에 대해 실명 공개에 동의하였으나,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성이 중복되는 경우 다른 성을 사용하였다

8) 구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사적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재로 불러 나오는 사실들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 언어로 이루어진 공적인 재현을 개인의 체험의 언어로 이루어진 사적 기억을 통해 상대화하는 작업이며, 반대로 다시 전자를 통해 후자를 상대화하는 작업이다(윤택림 2001). 구술생애사 텍스트를 보는 관점은 “사실적 진실성(factual truth)과 서술적 진실성(narrative truth)”으로 구분될 수 있다(김성례 2004, 50). 전자는 지시간 체험에 대한 사실들을 재구성하려는 관점이며, 후자는 현재의 기억을 통해 재구성된 생애사의 서사성과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작업이다(이희영 2005).

군기동타격대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는 살아 온 이야기에 대한 비개입적인 구술과 구술자가 표현한 주요 생애사적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구술로 진행되었다. 또한 5명의 면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이하 현사연), 5·18 기념재단(2007), 전남대학교5·18연구소(2003)의 구술증언록에 등장하는 5명의 기동타격대원의 증언을 추가로 반영하였다.<sup>9)</sup>

## 2.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 1) '5·18체험' 과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기동타격대원은 대부분 1980년 5월 이전에는 자립과 직업의 안정을 위해 기술을 배우거나, 이직을 반복하던 하층 노동자들이었다. 광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므로, 이직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유출입이 잦았고,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서울로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다녔다(이종범 2004). 기동타격대원 역시도 웨이터, 다방 종업원 등의 영세서비스직과 공장 노동자, 용접공, 석공 등의 생산직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

9)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할 수 없었던 기층민중들의 익명적 지식(Foucault 1998; 김원 2006에서 재인용)을 산출하는 과정은 지식인 및 지배층 중심의 역사적 기록에 대항해 고유한 체험과 기억이 담겨진 흔적의 조각보를 맞추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Crehan 2002). 따라서 구술자가 언어화하지 못하거나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적 구술에서 드러나지 않은 체험들은 다른 '흔적'들을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증언자료는 산출된 시기와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유한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청년)들이었다.<sup>10)</sup>

따라서 5월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 항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당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평소에 이들은 대학생들의 시위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박○○ 씨는 평소에 대학생들의 시위를 “철없고 부모 고생시키는” 행동으로 생각했으며, 김○○ 씨는 “전쟁만 안 일어나고 편안히 살아가면 쓰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지,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김○○: 1).

### (1) 항쟁체험: “지켜야 할 세상인 거 같았다”

기동타격대에게 5·18은 ‘군부독재권력에 대항한 민주화운동’과 같은 정치적 의미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된 1차적 계기는 시민들과 이웃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한 살상극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감정이었다(최정운 1999). 김○○ 씨는 5월 18일에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구타당하여 공포심을 느꼈지만, “불의를 보고 나만 살겠다고 도피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다(김○○: 2-3). 이○○ 씨는 “정의로운 군인이 무고한 시민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계엄군을 적으로, 시민군을 아군으로 규정하고, 시민군에 참여했다(이○○; 현사연 1990, 494). 최○○ 씨는 당시 석공이었으며, 서방 마을에서 ‘건설세계’에 있었다. 5월 19일에 조직 선배의 가족이 공수부대에 사살당한 후 “도저히 참고 있을 수가 없

---

10) 구축된 30명의 기동타격대의 계층별 현황을 보면 생산직 노동자(64.3%)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직 노동자(10.0%), 학생(10.0%)으로 구성되었다(안종철 2007a, 360). 학생의 경우, 부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어서”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화염병을 만들어 시위에 참여했다 (최○○; 5·18기념재단 2007). 이처럼 기동타격대는 계엄군에 의한 이투과 가족들이 희생을 목격하면서, 제각각 자신의 생활세계로부터 비롯한 규범적 계기—각각 ‘청년’, ‘군인’, ‘건달’로서 책임감 등—를 형성하였고 동료들 및 시민들과 뭉쳐서 시민군에 참가하였다.<sup>11)</sup>

이 밖에도 노동자들이 시민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으로부터 느낀 인간적인 감동 때문이었다. 그것은 평소에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기층민중들이 박탈당해왔던 것이기도 하였다. 이○○ 씨에게는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박수쳐주고, 물과 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체합 속에서 5월 23일, “군인신분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 결심했다 (이○○: 7). 최○○ 씨는 항쟁 당시 시민군의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자랐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반건달로 살다가 갑자기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젊은이가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략) “이런 거 하지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라는 말만 듣다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중략)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을 드는 일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체구실을 하면서 살게 됐죠. 거기에서 자유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말이에요. 틀에 매어 있다가 다른 틀로 확 풀려서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도망을 가요? 아니죠. 지켜야죠.(최○○; 한겨레21 2010).

11) 최정운이 말 한대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겐 ‘의리라면 끝내주는’ 생활방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기동타격대 역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항쟁 참여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최정운 1999, 81).

실제로 시민군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지지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시민군과 시민의 일체감은 역사에서 찾기 어려운 두터운 것이었다(안종철 2007a, 368). 항쟁에 참여한 1차적인 계기가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심이 죽음을 건 최후항전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2차적인 계기는 항쟁의 기간 동안에 형성된 ‘절대공동체’<sup>12)</sup>의 체험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항쟁 당시의 상황은 “지켜야 할 세상인 거 같았다”는 말로만 표현된다. 이것이 정치적 목적의식을 지녔던 지식인들과 달리 기층민중들이 항쟁에서 느꼈던 ‘민주주의’였다.<sup>13)</sup> 즉, 하층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시기에 자의적·타의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쟁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계기는 저항공동체를 사수하는 기동타격대 활동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것은 젊은 노동자들이 지녔던 순수한 감수성, 행동주의적 정의감(이종범 2004)의 문화가 지니는 힘이기도 했다.

한편 기동타격대원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압이 진행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삶과 죽음을 피부로 체험했다. 이러한 체험은 신체적 죽음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과정이자,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간의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복합적인 감정의 도가니 상태였다. 박○○ 씨는 진압 시 목에 총을 맞고 피를 흘렸던 느낌과 강○○ 씨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려고 군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일을 항쟁체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무차별한 사격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상

12) ‘절대공동체’는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공동체이다(최정운 1999, 140).

13) 최정운은 항쟁 당시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와 민중들의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평가한다. 수습을 주장했던 다수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상상했지만, 그들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러한 이념으로 설명해 내는 데에는 실패했다(최정운 1999).

황에서도, ‘자신의 죽음’보다 ‘타인의 죽음’을 먼저 생각했던 강○○ 씨에 대한 기억은 ‘예수’ 이미지로 기억된다(박○○: 7). 최○○ 씨 역시도 진압 당시 “끔찍끔찍하는 동료의 눈”과 “그의 몸에서 솟구치는 피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은 그에게 “더 이상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가 없어” 졌던 순간이었다. 이 순간은 현재까지도 최○○ 씨의 꿈에 자주 등장한다(최○○: 5·18기념재단 2007).

## (2) 상무대 영창생활: “특A급 낙인과 개돼지보다 못한 생활”

도청 최후항전이 진압당한 후, 5월 27일 아침부터의 시간은 기동타격대원에게 항쟁 당시에 느꼈던 환희와 열광의 시간에서 현실의 억압과 구속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기동타격대원은 도청 항쟁이 끝나고 상무대 및 병원에 실려 와서 현실의 생존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싸움은 집단적인 것이었으나 죽음은 개인적으로 찾아왔고(황석영 1985)”, 싸움이 끝난 뒤 대원들은 고립된 채 혼자만의 힘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상무대로 이송되면서 구속자들은 “개돼지보다 더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상무대 영창에서는 30명이 적정 수용인원인 공간에 100여 명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리를 겹쳐서 자야 했으며, 7개월 간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병에 시달렸고, 소량의 저질 음식을 배급받았다(김○○: 5). 구타는 교도관이 죄수를 대하는 기본적인 언어였고, 물고문, 전기고문, 손깎지에 불펜 넣고 돌리기, 개미고문 등 악랄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김○○ 씨에게는 개미굴에 얼굴을 처박는 개미고문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는데, 그 외 각종 고문과 구타로 인해 5개월 간 11번을 병원에 실려가야 했다.

당시 상무대에는 (중략) 포플러 나무 밑에는 개미가, 왕개미가 있어요.

당시 군용 사각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다리 묶어 놓고 뒤로 수갑 채워서, 나무 밑에 엎드려 놓고 지휘봉으로 개미굴을 이렇게 건드렸어. 개미가 수백 마리 몸 속, 몸으로 올라와서 기어 다니고 물고. 개미도 상당히 그 무는 것은,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무는 것은 아픔 자체는 고통 자체는 이제 이력이 나 가지고 참아져요. 근데, 이 위로 어디로 수백 마리가 막 개미가, 그 소름은 이루 지금도 진짜 표현하기가... (김○○: 6)

다수의 기동타격대원은 활동한 것이 밝혀지면서, ‘특A급’ 폭도, ‘순악질’, ‘극렬’ 분자 대우를 받았고 그에 준하는 가혹행위 못지않게 언어적 폭력에 시달렸다. 교도관들은 기동타격대원에게 “총알이 아까우니 대검으로 쏘셔” 죽여야 된다고(안○○; 현사연 1990, 490), 항쟁기간에 “가시내들을 몇명이나 검탈했느냐”,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도둑질은 얼마나 했냐?”는 등의 심문을 하고 이에 대해 부정하면 구타를 일삼았다(염○○; 현사연 1990, 493).

한편, 상무대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기동타격대원은 학생 및 지식인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sup>14)</sup> 강○○ 씨는 학생들과 갈등도 많았지만, ‘노동삼법’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로 기억한다. 하지만 교수나 학생들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면회 및 담배 반입이 가능했지만, 항쟁 당시 검거된 노동자층은 7~9개월 간 면회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최○○;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3) 열악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불만들은 ‘배운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즉 노동자와 학생들 간의 만남은 서로 다른 계층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14) 상무대 구속자들은 5·18 이전에 예비검속되었던 부류, 항쟁 당시 구속된 부류, 항쟁 이후 검거된 부류가 있었는데, 주로 예비검속과 항쟁 후 검거로 들어온 학생과 교수들은 다른 방을 사용하였다. 상무대 영창은 부채꼴 모양의 건물인데, 그 안에는 중앙으로부터 부챗살 모양으로 나뉜진 6개 방(소대)이 있었다. 한 개 소대는 교도관이 사용하였고, 2, 3소대는 주로 항쟁 전후에 잡혀온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몇 개의 소대에는 교수들과 노동자들이 한방에서 섞여 생활하기도 하였다.

과정이기도 했다.

### (3) 1980년의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성격

기동타격대원에게 5월민중항쟁은 저항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확장시키고, 해방적 감정을 느꼈던 ‘외상사건’이었다. 즉, 이들은 죽음의 위협, 살상, 살상의 목격 등의 외상체험과 동시에, 그러한 외상사건에 상호 협동으로 대항하였으므로 이들의 트라우마는 저항적 트라우마티즘<sup>15)</sup>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공포 상태 속에서도 외상에 대항하여 형성한 적극적 감정이 보호요인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한편 고문과 구타가 일상화된 상무대 수감생활은 항쟁보다 더욱 가혹한 폭력의 지속상태로서 만성적인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했던 시기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트라우마 증상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구속자 집단은 고문구타로 인해 부상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신체적 폭력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다양한 이유로 인해 PTSD를 극복할 수 있었다(최정기 2008). 기동타격대 대부분이 기층민중 출신이었기에 국가폭력 등에 대한 해석체계와 정신적 자원을 지닐 수 없었던 점은 부상자들처럼 취약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운동가

---

15)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이라는 개념은 트라우마 관련 이론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개념은 아니며, 다만 정호기(2003b)는 5·18 참가자들이 항쟁 이후 장례투쟁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행동, 항쟁의 상징적인 장소를 보존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항행위 과정 속에서 발생한 트라우마가 지니는 복합적인 특징들-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공포, 분노 등의 극도의 흥분상태와 동시에 정치적 체험을 통한 희열이나 세계관의 균열 등의 각성상태가 동시에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16) 허먼은 극단적인 외상의 상황에서도 사회적인 연결과 적극적인 대처 기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추후에 외상 후 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Herman 1997).

들과의 교류 및 항쟁 당시의 저항과 연대의 경험들 때문에 외상에 대한 보호요인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기동타격대원처럼 기층민중 출신의 저항집단이 국가폭력에 대응하여 형성한 트라우마티즘은 이와 같은 ‘취약요인’과 ‘보호요인’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 2) ‘5월정신’<sup>17)</sup>을 향한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 극복 전략

계엄사령부는 1980년 9월 5일, 연행자들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발표하였고, 기동타격대원은 대부분 10월 30일 형집행정지 및 감형조치 때 석방되었다. 이들은 석방되기 전에 모두 “상무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발설 금지 및 발설 시 재구속”이라는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김○○: 8). 김○○ 씨의 말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몽을 다시 꾸고 싶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김○○: 8), 이들은 석방 직후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말하지 못한 채 항쟁과 고문의 기억을 나누고 치유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5·18 참여 자체가 ‘빨갱이’ 낙인으로 이어졌으므로 생존을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망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항쟁 직후 몇 년간을 항쟁의 참상과 총상 및 병원생활, 상무대에서의 고문·구타 등 5·18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채, 1980년 5월 17일 이전의 생애사의 연장선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박○○: 10). 염○○ 씨의 경우도 81년 초에 “광주가 싫어져서” 서울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였다(염○○: 차: 3). 한편 나○○ 씨는 사면 및 복권장이 날아들자, 이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생겨나

17) ‘5월정신’은 5월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광주시민들이 공유했던 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리키며, 그 의미는 광주지역 바깥으로 확장 및 재해석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5월정신’은 일반적으로 5월민중항쟁의 ‘높낮이 없는 민중성’, ‘상호헌신적인 공동체성’, ‘죽은 영령에 대한 추모’ 등의 의미를 가리키나, 정치적 담론의 장에서는 5·18과 관련한 민주주의 의제들을 포함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5월정신’을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자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고 살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져”, 음독자살을 시도했으며(나○○; 현사연 1990, 485), 한○○ 씨의 경우도 취직의 어려움, 고문후유증, 정치적 낙인과 감시 등으로 앓아 누워 있다가 두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하였다(한○○; 현사연 1990, 511). 집단적 망각은 ‘실패한 항쟁’의 참가자들이 겪어야 했던 생존 전략이었으며, 따라서 광주시민들 다수가 수 년간 망각의 상태를 겪어야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안전의 부재 상태 속에서도 5·18 참가자들에 의해 결성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등의 5월단체<sup>18)</sup>들과 광주의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항쟁체험을 나누었던 광주시민들의 공동체는 이들이 그나마 의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 (1) 5월투쟁의 체험: “암매장시체 발굴과 화염병조 활동”

1983년경부터 몇몇 회원의 주도로 ‘기동타격대 모임’ 결성이 시도되었다.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80년 항쟁과 상무대의 체험을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sup>19)</sup> 기동타격대원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는 동안 더욱더 경찰의 감시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친목모임의 형태를 시도하는 등 그 노력은 계속되었다. 특히 기동타격대원은 주로 항쟁 및 최후항전 당시 발생한 행방불명자를 찾아내고, 암매장된 시체를 발굴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항쟁기간 동안 죽어간 사람들, 더욱이 죽었으나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열사’에 대한 남다른 기억과 부채감을 지녔다.

18) 5월단체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8월운동협의회 등 5·18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사자 단체와 당사자들의 연합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19)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역시도 고통을 나누기 위해 각각 81년, 82년 모임을 시작했고, ‘장례투쟁’ 등으로 슬픔을 집단적으로 표현하였다. 구속자들의 경우, 가족들이 모여 각종 대책을 논의하면서 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구속자들이 석방된 이후 회합을 거쳐 84년경 구속자협의회가 출범했다(나간재 1997).

‘사무라이’라 불렸던 한 팀원은 박○○ 씨가 계엄군의 총에 맞았을 때, 장○○ 씨와 함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지만, 상무대에서도, 5월투쟁에서도, 보상금 수령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박○○: 6).

죽었겠죠.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 요즘 더욱 사무라이처럼 이름 없이 도청을 지켰던 사람들,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테 묻어버린 망월동 묘역의 무명 열사들이 진짜 5·18이라는 생각이 드요. 낭마주의, 부랑아, 이렇게 천시하면서 5·18의 바깥 존재인 것처럼 취급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꼭 기억해야 하지 않겠어요?(한겨레21 2010)

한편, 기동타격대원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사수대의 역할을 주도하였다. 특히 87년부터 각지에서 격렬한 시위가 진행되었을 때, 기동타격대원들은 ‘상경투쟁’ 등에 참가하여 ‘화염병조’로 공권력에 대항해 공세적으로 싸웠다. 이들에게 1980년 당시에 겪었던 공수부대, 교도관, 정보과 형사에 대한 분노는 자연스럽게 군경을 향한 적대감과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그저 동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전두환’ 영상이 나오는 TV를 부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남○○: 5·18기념재단 2007).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수대와 화염병조의 역할은 1980년 당시의 울분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였다.

5월투쟁은 1980년 이전부터 기반을 지녀온 지역 운동조직 및 재야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원은 지역 운동조직 및 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특히 구속자들의 모임인 ‘5·18민중항쟁동지회(오항동)’는 지역 운동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원들은 5·18항쟁에 대한 정치적 각성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조직과 관련된 갈등도 겪는다. 박○○ 씨에게는 “운명이 바뀐” 첫 번째 계기가 5·18이었다면 “운명이 바뀐” 두 번째 계기는

‘오향동’과의 만남이었다. 그에게 이 시기는 항쟁의 참상, 상해와 고문으로 인한 고통, 범죄자 낙인 등의 잊고 싶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고 “그 덩어리가 통째로 누르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그러한 “덩어리”를 극복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5·18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범죄자가 아닌, ‘나는 5·18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중략)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 하면은, 정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뭐니까? ‘5·18을 위해 던졌던 사람’. 그 때 당시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아 5·18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칭찬을 받아야지 욕을 먹으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5·18정신’을 만든 거죠. 나는 ‘5·18 사람’이니까 행동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 (중략) 내 자신은 지켜야 된다는 거(박○○: 10-11).

하지만, 5·18에 대한 역사적 판단과 해석의 언어는 소수의 학생들 및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동타격대원들은 5월민중항쟁에 대한 이념적 언어들 속에서 자신의 체험은 어딘가 모르게 대상화되고, 소외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에 5월투쟁에서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었고, 기동타격대원들은 주로 행동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다. 최○○ 씨는 1980년까지 노동자이면서 ‘건달세계’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항쟁 이후 적극적으로 5월투쟁에 참가하고 사회운동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운 사람들’로부터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자, 의도적으로 징역살이를 하며 공부했지만, 그 후에도 ‘배운 집단’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최○○; 5·18기념재단 2007).

## (2) 가난한 삶과 가족의 희생: “매혈로 생계를 유지했던 시절”

정부는 중형을 받은 관련자의 신원조회서를 발부하여 감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취직이 안 되거나, 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월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무보수”로 다니거나, 사비를 들여가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sup>20)</sup> 나중에 보상금을 받았을 때에도 이들은 그동안의 부채를 갚느라 보상금을 사용해버린 경우도 많았다. 박○○ 씨는 “분유값”을 벌기 위해 구두땀이부터 “손수 김밥을 팔아 팔러” 다니는 일까지 안 해 본 것이 없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자, 마지막 방법으로 매혈을 해서 생계비를 마련했다. 이러한 선택은 비단 박○○ 씨만 한 것이 아니었다(박○○: 18).

하지만 일찍 가정을 꾸리고 나름의 조건에서 생활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도 있다. 염○○ 씨는 일단 결혼하여 86년에 광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보일러 설비공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었고, 밑천을 마련해 결혼을 하고 광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하지만, 5월투쟁의 결합, 후유증의 악화, 사업의 실패 등으로 어렵게 모아둔 돈은 모두 사라졌다(염○○: 21). 강○○ 씨의 경우도 장성에 살면서 죽기 전까지 농사와 조경수 재배를 통해 꾸준히 생업에 종사해왔다(하○○: 9). 고등학생이었던 재수생이었던 타격대원들은 5월민중항쟁 이후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삶의 고통은 가족들에게 전이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가족들은 과음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자녀들의 성장과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

20) 정부는 단순가담자 및 피해자와 주동자 집단을 분리시켜 전자에게는 각종 회유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였지만, 후자에게는 경제생활의 기회조차 차단시켰다. 단순가담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대한 신군부의 회유책은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과 생활비 지급, 묘지이장 위로금 지급, 유흥오락실 운영권의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도와 주동자로 판명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한 고립과 감시의 정책이 취해졌다(나간재 1997).

평소 술에 의존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며 지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험하였던 5·18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어려웠다(남○○; 5·18기념재단 2007). 또한 남편의 생활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도맡아 해야 했다. 실제로 가정불화로 인해 기동타격대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하였다(김○○; 9).

### (3) 80년대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성격

허먼의 트라우마 회복단계에 따르면 기동타격대원들은 1단계의 회복요건—정서적 지지, 안전의 확보, 생계의 유지 등—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의 결집 및 5월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2단계의 회복요건, 즉 외상기억을 불러내고, 애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5월단체 및 5월공동체<sup>21)</sup>로부터의 인정투쟁을 통해 3단계의 회복요건, 즉 단절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부분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연결의 복구가 가능했다.

먼저, 석방 직후 수 년간 기동타격대원들은 외상기억을 망각하는 방식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일상의 의식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밀쳐진 기억의 파편은 다시 침투 증상으로 솟아오르게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서적 지지 체계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외상 후 증상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 체계의 토대가 침식당하고, 애착과 의미의 체계도 흔들리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21) '5월 공동체'는 5·18 당사자뿐만 아니라 5·18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킨다. 때에 따라 5월공동체는 '5월정신'을 공유하고자 했던 전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앞선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원들은 트라우마를 넘어서기 위해 회복의 2단계와 3단계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고립될수록 동료집단과 경쟁체험의 경험을 나누고, 외상사건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5월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트라우마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층민중 출신이었던 이들은 5월단체 및 지역의 사회운동조직을 만남으로 ‘5월정신’을 형성하고, ‘민주화 투사’로서의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기동타격대에게 ‘5월정신’은 ‘광주시민들과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 ‘1차적인 생존의 욕구를 초월하여 항쟁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규범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생애사적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5월투쟁을 통해 5월공동체라는 일반화된 타자를 구성하고, 이를 준거삼아 가치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다.

즉, 이들이 1980년대에 지녔던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은 기초적인 단계의 사회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정투쟁이 결합된 것이었다. 또한 5월투쟁에서 트라우마의 상징인 공권력에 대항하여 신체적 위협과 폭력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외상의 상징이었던 무명열사와 도청의 기억을 회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불러냄으로써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확장시켰다.

### 3) ‘5·18자원’을 향한 인정투쟁과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1987년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 직선제 개헌 등의 민주화 흐름이 진전되면서, 1980년대의 5·18에 대한 강경한 억압정책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방어적인 억압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sup>22)</sup>로 1990년과, 1993년 각각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보상 정책<sup>23)</sup>을 시행하였고, 미온적으로나마 5·18은 ‘민주화운

동'으로 인정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고, 기념사업이 조성되면서 5·18과 관련된 과거 청산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정치정세의 변화는 1990년을 전후하여, 5월 공동체가 지녔던 강한 일체감의 분화효과를 가져왔다. 비타협적인 저항 운동 집단이었던 5월단체는 이러한 분화효과 속에서 이합집산하여 13개 까지 분립되기도 하였다. 또한 5·18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들이 마련되고, 소위 '5월세력'이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정치 공간으로 진출하면서, 5·18과 관련된 의제들은 대중화되고 자원화된다.

### (1) 5·18의 금전화: “허위보상금 수급은 정부의 피를 빨아 먹는 일”

‘광주보상법’이 발의되었을 때, 투쟁해왔던 5월단체 및 기동타격대원들은 보상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웠으나 “명예회복도 좋지만,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받을 것은 받고” 투쟁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김○○: 21-22; 이○○: 10). 한편 보상금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경제력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상이 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고 20대 전후였던 기동타격대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다.<sup>24)</sup>

22) 1990년 7월 민자당은 여야협상에 의한 법률안 마련을 포기하고 3당 야합으로 ‘광주민중화 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어떤 조항도 삽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금전적 보상만을 명시하였다(안종철 2007b).

23) 노태우 정부는 1990년 7월 ‘광주보상법’에 의거, 1차 보상을 실시하여 피해자 신청을 받고 총 2,224명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93년 김영삼 정부는 2차 보상을 실시하여, 1차 보상 때 거부하였던 피해자를 신청받아 총 1,843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누락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2004년까지 총 4,362명이 5·18관련 피해자로 인정되었다(안종철 2007b).

24) 전체 보상액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생활지원금, 구속자의 경우 연행구금일수에 해당하는 구속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으로 분류되고, 이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 기타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보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된 이유에는 고문구타에 대한 보상기준의 부재, 의학적 증명의 어려움, 낮은 소득수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문으로 소위 ‘얼병’이 들거나, 정신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관련 전문의와 만날 기회가 없었고,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등급’으로 분류된 경우도 많았다. 김○○ 씨는 10년간 고문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동안 쌓인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김○○: 13).

그래도 부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염○○ 씨는 보상금을 받고 “커피 한 잔 안 먹고”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전의 생활수준으로 돌아왔다.<sup>25)</sup> 강○○ 씨도 “술 한 잔 먹지 않고” 장성에 집을 지었지만 사망하기까지 치료비가 1억 가까이 들었기 때문에 강○○ 씨의 아내는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했다(하○○: 2). 기동타격대원의 경우, 1990년 이후에도 단체활동이나 투쟁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생활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기도 했다. 한편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조그만한 식당 같은데서 소주 한 병에 삼겹살 먹다가, 소주가 양주로 바뀌고, 삼겹살이 양주안주로 바뀌는” 등 무계획적인 소비생활로 인해 보상금을 탕진해 버리기도 하였다(박○○: 24).

한편 보상금은 개별적이고, 차등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 내부에서 보상금액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는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그 결과 서로 간 불신과 의심이 형성되어 5월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5월투쟁을 함께 해왔던 기동타격대원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상처로 다가왔다. 박○○ 씨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더 많은 보상금을 요

---

25) 실제로 5·18재단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18 참가자들의 2000년대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는 1980년 당시의 생활실태에 비해 나아지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었다(5·18기념재단 2006).

구하고 이를 동료에게 권하는 당사자들의 모습이 “정부의 피를 빨아 먹는” 행위로 느껴졌다(박○○: 42).

5월단체에 정부 및 시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내부 갈등도 증폭되었다. 5월단체는 시와 구의 5월단체 공공사업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다른 영세한 단체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운영 과정에서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하여, 시민들 및 회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 씨는 돈을 주고받는 일자리 알선의 관행 속에서 “구두박스”를 마련하여 자립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바람조차 실현할 수 없었다(박○○: 43). 따라서 박○○ 씨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정부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향한 실망감으로 나타난다. 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기동타격대원들도 “이게 5·18이에요”, “광주가 얼마나 썩어 있냐면”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5월단체의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했다(박○○: 18).

## (2) 5·18의 정치화: “가방끈’에 대한 실망”

재야 민주화세력의 합법적인 정치 진출의 기회가 확장됨에 따라 ‘5월세력’ 정치인들은 각종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의원 등으로 제도권 정치에 편입하게 된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부분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5·18 관련 이슈는 야당 및 사회운동세력의 주된 이념과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원들의 경우 정치인들의 정계진출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박○○ 씨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왔던 활동가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은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박○○: 46). 김○○ 씨는 밑에서 투쟁은 ‘민초’들이 하고, 그 성과는 배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현실로, 염○○ 씨는 “우리 같이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 가방끈 긴 사람들은 자기들 잇속 먼저 계산”하는 현실로 느껴졌다(염○○ 2차:

18-19).

구속자들 및 지역 지식인들은 5월단체의 분열과 난맥상을 극복하고자, 5·18기념재단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기동타격대원들은 5월공동체의 성과물이었던 5·18기념재단의 운영권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시련을 견디면서 5월투쟁에 헌신해왔던 자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박○○: 47; 김○○: 12; 염○○차: 27). 또한 다수의 5·18 참가자들이 기초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재단이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느꼈다(김○○: 12).<sup>26)</sup> 이에 대한 불만은 5·18 당시 예비검속 등으로 인해 피신했던 지식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씨는 5·18 이후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떠났던 윤○○ 씨<sup>27)</sup>의 행동과 그의 5·18재단 운영에 비판적이었다. 이○○ 씨뿐만 아니라, 5월투쟁에 앞장섰던 다수의 기동타격대원들에게 ‘가방끈 긴 사람들’ 중심의 운영과정은 ‘민중성과 평등성’이라는 ‘5·18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민주화, 민주화라고 자꾸 이러는 사람들, 내가 웃음 나와요. ‘너나 잘 해라.’ 한사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자기들 이익 틀지고, 학연 지연 찾아가 불면, 우리는 아,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놈들이 뭐 학연 지연이 있겠어요. 5·18이 뭐 학연 지연으로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나는 봐요. 뭐 전대가 뭣이 어찌고, 아 나, “전대가 뭣 어찌야? 니들 5·18 때 뭣했냐, 다 도망간 놈들 아니냐?” 무식하게 얘기해야 한당게요? “니들

26) 2006년 조사에 의하면 5·18 유공자들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5·18기념재단 2006).

27) 윤○○ 씨는 80년 당시 전남문화연구소와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청년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80년 5월 당시 예비검속을 피하기 위해 광주를 떠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밀항하였다가 93년 수배령이 해제되면서 입국하였다. 윤○○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는 유일하게 국민훈장을 수여받았다.

도망간 놈들 아니냐, 살라고”(이○○: 12)

기동타격대원들은 출신 대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자 단체 활동 등에서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의 인물들의 세력다툼에서는 낄 수도 없고, 안 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단체를 주로 지식인 집단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심부름꾼”이 되거나 세력다툼에 휘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박○○: 56-57). 많은 회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정 대학 출신의 지식인집단에 의존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들은 다시 주변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후견인을 찾아가지만 이 과정은 이들을 끊임없이 ‘들러리’의 존재로 만들었다.

5·18 참가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이 잦아지자, 5월단체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여론도 악화되고, 5·18 참가자들과 시민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졌다. 몇몇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5·18 참가자들은 “5·18을 팔아먹는 사람들”로 치부되기도 했다. 기동타격대의 경우, 그동안 비타협적인 투쟁에 참여해왔고, 경제적 이권이나 정치적 자원으로부터 항상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에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 (3) 90년대의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성격

5·18의 ‘자원화’—5·18에 대한 막대한 예산 증액, 5·18세력의 제도정치 진출, 5·18의 대중화 등—라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동타격대원의 트라우마티즘의 성격은 변화된다. 먼저 보상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5·18 참가자들은 국가의 금전적 보상을 수급받는 소혜자로서 정체성이 강화되고 ‘5월정신’의 실현을 공유하는 5월공동체가 와해되면서, 항쟁주체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상호인정관계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동타격대원의 인정투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

되었다. 하나는 자신의 피해의 정도, 항쟁의 기여를 강조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투쟁’의 형태였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자원화’에 반대하여, 계속적으로 ‘5월정신’의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의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인정투쟁 모두 이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기동타격대원은 90년대에 5·18 자원을 둘러싼 인정투쟁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80년대의 투쟁 속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5월투사’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동타격대원은 5·18과 관련된 의제들이 자원화되면서, ‘5월정신’이라는 일반화된 타자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와 공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인정투쟁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금, 단체 내부에서의 주변화 등을 겪으면서 권리에 대한 인정투쟁에 실패하였다. 또한 ‘5월정신’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공유하고, 상호인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광주시민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축소를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부터 이어진 정서적 지지의 공간(가죽)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

#### 4) ‘상처받은 5월정신’ 과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2001년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다수의 5·18 참가자들이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고, 2002년에는 신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기념사업은 2000년대에 들어 관련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단체 내부의 갈등과 마찰은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 기동타격대원들은 5·18 현장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에 들어간다. 한편, 2000년대는 당사자들의 나이가 50대로 진입하는 시기로, 경제력의 상실과 활동력의 위축으로 인해 노후생활의 안정 및 복지에 대한 새로운 생애

사적 요구가 나타난다. 이제 5월단체는 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유공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정부에 회원들의 명예유지를 위한 복지혜택을 바라고 있다.

### (1) 불안정한 노후생활: “개새끼 하나만도 못한 우리들의 죽음”

5월민중항쟁으로부터 배운 ‘5월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기동타격대원의 사명감은 “투쟁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현실 앞에서 심리적 갈등과 무기력감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계속될수록 ‘5월투사’로 함께 해왔던 주변 동료들에 대한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기동타격대원에게는 자신에게 “민주화 투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높은 양반이 돼서 잘 살고” 있지만, “폭도로 몰려 보상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도 못했을 때” 홀로 견디어야 했던 현실이 부조리하게 느껴진다(한겨레21 2010). 또한 이들은 동료의 부고 소식과 자살 소식 및 장례조차 명예롭게 치르지 못하는 현재의 처지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된다. 염○○ 씨는 당장 죽어도 장례 치를 돈이 없고, 찾아올 사람 없는 자신의 죽음을 “개새끼 하나 죽어나가는 것만 못한 것”으로 느꼈다. 이러한 현실은 같은 구속자이지만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학자의 장례식장의 모습과 대조된다.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치러. (중략) 일론 오늘 죽어갔고 오늘 치러도 600만 원인가 돈이 있어야 돼. 어, 근게 오늘 치러도 6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개새끼 하나 죽어나가는 것만 못하는 것이여. (중략) 학자들이 죽었을 때는, 대부분 지식인이 죽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끔 자리가 하나 차요. 그런 것을 봐와가면서 참~ (중략) 그래서 늘 누차 동지들한테도 말하지만은 “내가 학자, 지식인들 죽었을 때는 절대 안 간다.”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못 배운 사람들이 일은 광주서 다 했어

요. (중략) (못 배운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어야지 욕심을 내지. 그러나 일은 다 해주죠. 요런 것들 때문에, 상을 당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염○ ○ 1차: 5; 염○○ 2차: 19-20).

박○○ 씨에게 90년대 말은 이러한 체험이 가장 극심했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된다. 5·18이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5월단체 활동에서는 배제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인과의 이혼, 자녀와의 연락두절이라는 삼중고는 더 이상 ‘5·18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무조건 광주를 벗어나고 싶고”, “진짜 광주가 무섭고 지켜왔기에” 결국 2002년경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5·18과 무관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박○○: 33).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항쟁, 상무대 생활, 경제적 불안과 정부의 감시와 탄압보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5·18 참가자들이 서로 적이 되고 있는 현실”과 5·18 사람으로서 명예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97년… 98년, 2000년도 쯤인가, 그 때 조금 흔들렸죠 힘들다고. 진짜 5·18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 했던 게 가정을 꾸린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심점이 되고, 가장 잘 해놓은 일이 내 가정을 만들고 내 아이를 만들고. 근데 그게 깨졌어요. 가~장 잘 만들었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18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했죠. 힘들었고, 벗어나질 못하고(박○○: 32-33).

지금은 서로 죽이기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남들처럼 다른 역사의 인물들처럼 ‘나 5·18에 관련된 사람’이라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힘든 거지.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중략)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지들이 계~속 적이 되고, 계속 또 다른 적을 만들고 있고(박○○: 51).

기동타격대원들은 평생 동안 5월투쟁에 헌신해 왔지만, 5·18의 혜택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동지들과 갈등하게 되었고, 5월단체의 왜곡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5월정신’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혜택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감을 느낀다.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은 기동타격대원 나○○ 씨를 정신적인 이상으로, 전투적인 활동가였던 한○○ 씨를 자살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딜레마와 피해의식은 노후로 접어들수록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 (2) 2000년대의 인정투쟁과 트라우마티즘의 성격

기동타격대원에게 5·18의 의제가 마무리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일반화된 타자 즉, 5월단체를 향한 박탈감과 적대감의 감정이 더욱 강화되었고, 극단적인 경우는 광주를 떠나거나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복합적인 트라우마티즘이 형성되었다. 이들에게 ‘5월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980년대에 비타협적으로 전개했던 5월운동은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디어 내는 과정, 극도의 가난과 생존의 욕구를 초월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동타격대원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타자의 존재는 조금씩 사라졌다. 당장 죽어도 “장례비 600만 원이 없어 초상을 치르지 못하는” 처지, “구두박스 하나 얻어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로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삶은 ‘5·18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들에게 5월투쟁에 대한 권리인정의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이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복잡한 현실은 이처럼 기본적인 요구도 얻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5월운동을 격려하고, 항쟁의 투사로서 의식적인 성장을 고무해왔던 동료들로부터 이러한 상호인정이 축소되었기에 상처는 비단 국가와 타지역민만을 향해 있지 않고, 단체 내부를 향해 있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박탈감은 5월단체의 회원과 간부들 및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한 분노로 표현되고 있다. 이들에게 5월단체 회원들이 “서로가 적이 되고 있는 현실”, 광주시민들에게 “어디가서 5·18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는 5·18 유공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생활세계에서만큼은 ‘명예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박○○ 씨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박철언<sup>28)</sup>을 등장시켜 관련자들을 삼청교육대에 다시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표현되었다(박○○: 48).

### 3. 정치사회적 함의

기동타격대원들은 극도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스스로 피해자이기보다는 항쟁주체로 살아왔던 사람들로서, 5·18에 대한 과거청산과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사례집단의 생애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회적 환경을 검토하여,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과정을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기동타격대원의 심리적 고통은 무엇보다 항쟁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금전보상’의 방식으로 진행된 정부의 보상 정책이 진행되면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시불로 지급된 거액의 보상금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켰지만, 오히려 여타 삶의 문

---

28) 박철언은 신군부의 등장 이후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제5공화국 헌법의 기초작업에 참여했다. 그 후 전두환의 비서관, 안기부장 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제들에 대해 침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동타격대원의 트라우마티즘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의 부재가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들이 90년대에 형성한 트라우마티즘은 오히려 5월민중항쟁과 5월투쟁의 주체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청산은 기동타격대원과 같은 항쟁주체가 항쟁에서 기여했던 역사적 가치와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보상정책이 집단보상이 아닌 개인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5·18 참가자들을 개별화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최정기 2006).

일반적으로 진상규명을 묻어둔 과거청산은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운동진영을 분열시키는데, 이는 “피해 ‘당사자’와 ‘대변자’의 분열, 혹은 ‘당사자’ 내부의 분열”로 나타난다. “피해자들은 당장의 억울함을 풀거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세력이 던지는 미끼, 즉 ‘보상 혹은 명예회복을 통한 화합’을 수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청산 작업이 뒤틀리게 된다. 따라서 대변자의 역할과 도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김동춘 2007, 563-564). 기동타격대원은 그동안 비타협적인 5월투쟁에 참여하는 등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왔기 때문에 위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상법에 대해서 심한 도덕적 갈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보상정책 시행 이후에는 보상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변자의 조정 역할, 집단적 보상을 통한 기층민 간의 공동체적 보상이 보다 성찰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들의 피해의식은 외부집단이나 정부만을 향해 있지 않고, 내부집단을 향해 있기도 하였다. 이는 ‘5월세력’의 명망가들이 제도권 정체세력으로 진출했지만, 기층민중 다수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5월정신’의 상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부집단에 대한 불신은 외상경험자에게서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과잉된 경계심,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 및 고립감 등이 겹치면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동타격대원은 기층민 출신으로서, 국가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항쟁 당시의 외상 및 수감생활 및 신군부의 일상적인 감시와 탄압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아래 없는 민주성’을 5월정신의 핵심 의미로 전유했던 5월운동이 87년 민주화 이후 그 의미를 급진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5월공동체 안에도 구현하지 못했던 현실은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정호기 2002).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볼 때, 광주 지역에서 5월민중항쟁과 5월운동의 전개로 인해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뒷받침하는 성원의 변화를 겪었지만 이러한 인적구성원들의 정계진출이 지역사회의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최정기 2004). ‘민주성’의 이념은 기동타격대원을 포함한 다수의 5월민중항쟁 참가자들로부터 태동되었음에도, 이들은 오히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던 ‘5월세력’의 몇몇 영웅들이 민주성을 과대대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리적 갈등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광일은 5월민중항쟁 당시 “운동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대중들은 지금 더 이상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선거 때에만 주체로 호명되어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치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례집단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박탈감의 내용과 일치한다(이광일 2007, 538).

#### 4. 결론

5·18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통해 본 트라우마티즘은 1980년 5월민중항쟁에서부터 5·18에 대한 과거청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고유한 인정투쟁의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변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례집단에게 ‘기동타격대 동지회’는 가족관계와 더불어 자기믿음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었으며, 5월단체 및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5월정신’이라는 도덕적 규범을 상호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기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인정투쟁의 공간이었다. 이와 더불어 5월공동체라는 가치공동체가 5·18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5·18 참가자들의 삶 속에서 민족 및 국가를 대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동타격대원에게 가족, 기동타격대 동지회, 5월단체, 5월공동체 등은 이들의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경제적 안정, 시민으로서의 권리, 가치 연대 등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적 인정투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형성된 사례집단의 트라우마티즘의 시기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트라우마티즘은 1980년 5월의 저항 체험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기에 1980년대에는 외상 후유증과 안전 부재의 환경 속에서도 일반화된 타자를 실현하기 위한 격렬한 저항적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했고 ‘민주화 투사’로서 5월공동체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5·18과 관련된 보상정책이 시행되면서, 순수한 가치로서의 ‘5월정신’이 대가와 권리의 문제로 전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순수한 가치를 담보하고자 했던 ‘항쟁주체’로서의 인정투쟁과 ‘5·18의 공헌자’로서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는 인정투쟁이 교차하게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생애사적 행위전략이 나타난다. 하지만 사례집단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정투쟁에서 만족스러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항쟁주체’로서 5월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지지가 상실되어 일종의 도덕적 아노미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정치적 권리 확장에 대한 기대의 상실로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 등 지속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

던 정서적 지지마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복합적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축소되었다.

이처럼 가치와 권리에 대한 반복적인 상실감은 피해의식이 강화되어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들이 과거의 생애사적 국면마다 이러한 감정들을 느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감정들은 현재의 처지에 대한 반영이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정체성은 타자와 상호주관적인 인정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은 타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기동타격대의 트라우마티즘은 자존감이 위축되고 타자에 대한 희망과 애착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화된 타자와 공유했던 상호주관적인 도덕규범에 대한 강한 부정의 태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트라우마티즘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정치사회적 그리고 생애사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동타격대의 사례만으로 5·18 트라우마티즘의 복잡한 양상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5·18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과 저항의 경험 그리고 이로부터 촉발된 정치적 사건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복잡한 심리적 갈등과 분열을 동반한 집단적 트라우마티즘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즉, 기동타격대가 아닌 구속자, 부상자, 유족, 광주시민들, 그리고 5월민중항쟁의 목격자 등이 상이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을 트라우마티즘의 내용과 의미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5·18 트라우마티즘은 어떻게 전개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

##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2006.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5·18기념재단.
- \_\_\_\_\_. 2007.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전사』. 5·18기념재단.
- \_\_\_\_\_. 2008.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부검 및 자살피해 예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5·18기념재단.
- 김동춘. 2007. “과거청산 작업과 한국 민주주의.”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 김성례. 2004. “한국 여성의 구술사: 방법론적 성찰.” 『젠더, 경험, 역사』. 조옥라·정지영 엮음.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 원. 2006. 『그녀들의 反역사, 여공1970』. 이매진
- 나간채. 1997. “광주지역 5월운동 조직의 형성과 발전: 5·18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박영주. 2004. “5·18 트라우마티즘 연구의 현황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안중철. 2007a.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3-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_\_\_\_\_. 2007b. “과거청산과 미해결 과제.”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5-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5·18기념재단.
- 오수성.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광주현대사료연구소 엮음.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 \_\_\_\_\_. 2001. “5·18관련자의 심리적 고통.”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오수성·신현균. 2008. “5·18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권 3호. 한국심리학회.
- 오수성·신현균·조용범. 2006. “5·18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권 2호. 한국심리학회.

- 윤택립. 2001.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구술자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호. 역사문제연구소.
- 이광일. 2007. “5·18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5·18민중항쟁의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 이종범. 2004. “5·18항쟁 증언에 나타난 ‘기층민중’의 경험과 생활.” 『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 전남대학교5·18연구소. 2003. 『5·18항쟁증언자료집 I, II-5·18연구소 자료총서』. 나간채·이명규 엮음. 전남대학교 출판부.
-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나간채 엮음.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정호기. 2002. “트라우마티즘과 기념사업—5월운동과 5·18 기념공간을 중심으로.”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자료집』. 비판사회학대회.
- \_\_\_\_\_. 2003a. “5월운동의 전개와 주체에 관한 연구—현황과 방향.” 『5·18 제24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5·18연구: 회고와 전망’』. 전남대학교5·18연구소.
- \_\_\_\_\_. 2003b.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5월운동’과 국립5·18묘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8권.
- 최정기. 2004. “5월운동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연구』 12권. 한국지역사회학회.
- \_\_\_\_\_.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광주민중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4권. 한국지역사회학회.
- \_\_\_\_\_. 2008.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기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7호. 한국산업사회학회.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현사연).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황석영.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 Crehan, K. 2002. *Gramsci, Culture and Anthropology*. Pluto Press; 김우영 역. 2004. 『그람시·문화·인류학』. 길.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Basic Books; 최현정 역. 2007.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플래닛.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이현재 역. 1996. 『인정 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동녘.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나은영 역. 2010. 『정신·자아·사회』. 한길사.

<기타자료>

- KBS스페셜 2009/05/17 “5·18자살자 심리부검 보고서.”  
 한겨레21 2010/05/24 “잊혀진 시민군, 도청 기동타격대.”

<구술녹취록>

- 강은숙. 2010/09/14. 김○○ 구술인터뷰 녹취록. 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 \_\_\_\_\_. 2010/09/14. 염○○ 구술인터뷰 녹취록(1). 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 \_\_\_\_\_. 2010/09/14. 이○○ 구술인터뷰 녹취록. 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 \_\_\_\_\_. 2010/10/23. 박○○ 구술인터뷰 녹취록. 서울시 은평구 자택.
- \_\_\_\_\_. 2011/04/13. 염○○ 구술인터뷰 녹취록(2). 광주시 남구 자택.
- \_\_\_\_\_. 2011/05/17. 하○○ 구술인터뷰 녹취록. 광주시 서구 자택.

투고: 2012.4.2    심사: 2012.4.24    확정: 2012.5.24